

식민권력이 반영된 경관의 보존 가치에 대한 연구: 일제 하 형성된 전남 소록도와 인천 삼릉(三陵) 마을을 사례로

정 은 혜*

A Study on the Conservation Value of Landscape within Colonial Power: Focused on Examples of Sorok Island and Mitsubishi Village

Eunhye Choung*

요약: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반영된 경관으로서 소록도와 삼릉 마을을 사례로 그 경관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보존 가치를 논하였다. 두 곳 모두 일제 강점기에 형성되었는데,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로, 삼릉 마을은 미쓰비시 군수공장의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어 각종 인권탄압, 노동착취 등이 자행된 곳이다. 현재까지도 질병과 가난이라는 상징성으로 그 의미가 남아 차별적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경관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지 못하고, 개발의 논리에 밀려 지속적으로 외면 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 지역들의 역사적 경관 보존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그 방안으로서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장소성 보존을 제안한다. 소록도와 삼릉 마을 등의 식민경관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에 의해 사라져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보존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주요어: 식민권력, 경관보존, 다크투어리즘, 소록도, 삼릉 마을.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the conservation value of Sorok Island and Mitsubishi Village whose landscape still has the aspects of colonial pow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landscape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rough a field study. Both Sorok Island and Mitsubishi Village were form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Sorok Island was a place specially designated for Hansen's disease patients, and Mitsubishi Village was a region where many Korean people were conscribed as the laborers of the Mitsubishi factory and exploited ruthlessly. Now, they still have a discriminated landscape as a horrific disease and poverty-stricken area. These landscapes having a sad and painful history haven't been properly managed and protected. Instead, they have been continuously ignored for development.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onserving these historical landscapes and suggests dark tourism-based placement conservation.

Key Words: colonial power, landscape conservation, dark tourism, Sorok Island, Mitsubishi Village.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빠른 근대화를 통해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제대로 된 역사적 절차나 검증 없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무질서한 개발에 둔감해진 지 오래다. 즉 끊임없이 요구되는 개발의 논리 속에서 과거의 경관들은 제대로 된 역사적 맥락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를 통해 경관이 급격히 변화한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형성된 경관에 대해 보존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한 개발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건물이나 마을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더라도 소홀한 관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로 이들 건물이나 마을의 철거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명숙, 2005, 46).

*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 Hee University, humangeo@khu.ac.kr)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전남 고흥의 소록도와 인천 부평의 삼릉 마을을 사례로 하여 식민권력(colonial power)으로 형성된 이들 경관들의 보존 가치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소록도와 삼릉 마을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곳으로, 소록도는 환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삼릉 마을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일반 주거지와 분리(segregation)하여 이들을 한 공간에 차별적으로 밀집·구성시킨 주거지 역이다. 즉 이들 지역은 수용소와 社宅이라는 형태로, 일반 주거지와 분리해 격리시킨 사회적 약자로서의 공간이자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의 역사가 차별적으로 반영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소록도와 삼릉 마을에는 일제식민권력을 의미하는 경관이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역사적 이해와 인식이 배제된 채 개발논리에 의한 휴양 관광지 개발 혹은 거주지 재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현재 남아있는 경관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적 이해와 경관의 보존 가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1) 전남 고흥군 소록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녹동항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4.4km² 규모의 작은 섬인 小鹿島는 하늘에서 본 섬의 형상이 작은 사슴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어여쁜 이름과는 달리 소록도는 한센병¹⁾ 환자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거주지로, 그리고 국립소록도병원이 있는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는 1916년 일제강점기의 ‘나환자 격리수용정책’에서 그 역사적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섬이라서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하다는 점, 둘째로 기후가 온화하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육지와 가까워 물자의 운반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소록도는 일제에 의해 한센병 집단촌으로 지정되어 전국을 배회하는 나환자들이 이곳에 격리 수용되었다. 일제는 소록도로 송치되어온 나환자들에게 신사 참배 등을 통한 일본식 생활양식을 강요하였고, 또한 빈틈없이 짜인 일과표에 의해 하루 두 차례의 인원 점호, 야간통행 금지, 그리고 요양소 내에서 환자들이 지켜야 할 27개 사항을 적은 심독서를 암송하도록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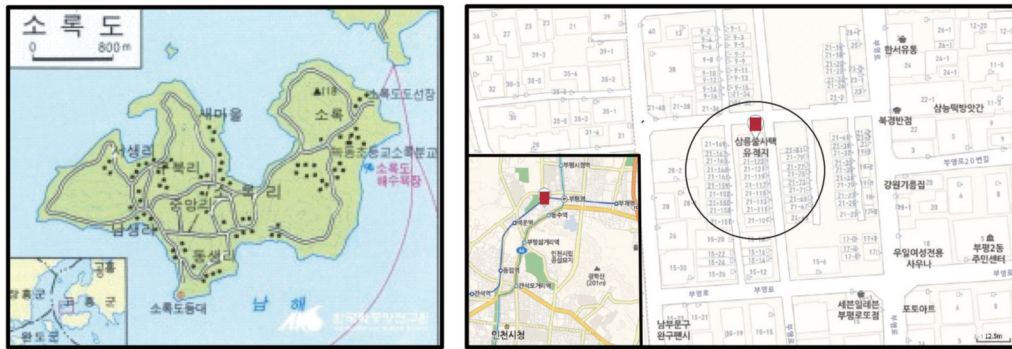
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 굴 채취 및 굴 까기 등의 노역 등에 강제 동원되었고, 일제의 나환자 정책 중 하나인 ‘평생격리원칙’에 근거해, 한번 소록도에 오면 영원히 퇴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이곳 환자들의 일상생활은 외지와 엄격히 차단된 채 일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감독되었다(안길원·서학조, 2002, 71).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강압적으로 형성된 소록도는 국내 한센병 환자들의 한 서린 역사가 경관으로 남아 공존하고 있고, 현재도 750여 명의 한센병 환자와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역사적 경관에서 생활하고 있다(최승훈, 2005, 131). 그러나 여전히 이곳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이어져 내려와 현재에도 차별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이곳에 남아있는 문화유산마저 소홀이 관리되어 낡고 허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2) 인천 부평구 부평2동 삼릉 마을

인천시 부평구의 지명들은 일제강점기에 생성된 병참기지 및 군수공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99년 경인선이 개통되고, 1900년에 부평역이 만들어지면서 차츰 중심지 이동이 일어났고, 1934년경 부평역과 주변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부평역 일대는 토지이용 변화가 나타났고, 이후 1940년 부평일대는 제2차 인천부역 확장으로 인해 인천부로 편입되었다(임동윤, 2008, 7-8).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시가지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지명이 생성되었다. 이렇게 생성된 부평구 내의 지명들은 주민들의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세대를 이어오면서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평구 부평2동에 위치한 삼릉 마을은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어 아직도 왜색지명의 기억이 유전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삼릉’이라는 말은 미쓰비시(三菱, みつびし, Mitsubishi)를 한자 음으로 읽은 것으로, 현재에도 삼릉 마을을 미쓰비시 마을로 부르고 있으며, 社宅들이 줄지어 있다고 하여 삼릉 출사택 혹은 미쓰비시 출사택으로도 알려져 있다.

삼릉 마을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군수물자 반출이 한창이던 1938년 지어져 일본군 군수물자 보급 공장인 육군 조병창²⁾으로 쓰였다. 즉 삼릉 마을은 군사무기를 제조하는 일본 육군 조병창의 부품하청업체인 미쓰비시사³⁾가 공장 노동자들의 기숙



출처: 한국관광연구원(左), 네이버 지도(右)를 재구성함.

그림 1. 소록도와 삼릉 마을 위치도

사 단지를 조성한 곳으로서, 미쓰비시 공장의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했던 사택들이 줄지어 모여 있다. 출사택 대다수가 노후화되어 폐 · 공가로 방치되고 있고, 이곳 거주민 대부분이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새뜰마을 사업(주거개선 사업)’이라는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다(인천in, 2015년 3월 30일자).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에 기반하여 식민경관에 대한 전반적 고찰을 통해 이들 경관 보존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경관 보존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존의 한 방편으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서의 모색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현장연구는 두 지역에 대한 답사와 인터뷰를 실시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현장답사는 소록도의 경우 2015년 4월 25일과 26일, 삼릉 마을의 경우 2016년 2월 14일과 21일 양일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동일기간 동안 해당 연구지역 주민과 부평역 사박물관 역사해설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 분석을 통해 두 연구지역의 일제강점기를 통해 남아있는 식민지 경관의 해석과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에 맞는 보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경관에 내재된 식민주의 권력

식민주의(colonialism)는 영토의 물리적 정복과 마음, 자아, 정체성, 문화의 정복을 진행하는데 있어 식민

주의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 여러 담론을 재생산해왔다. 그래서 식민주의가 자행된 장소에는 식민화된 것들이 왜곡되고 존속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지식과 가치의 식민적 위계들이 지속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는 경관을 통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체성과 차이의 이미지를 공간상에 투영시킨다(오정수, 2013, 28). 이렇게 식민주의는 경관의 변형을 가져온다. 식민주의 경관은 정리되고, 위생처리 되고, 규제 가능하게 바뀌며, 경제활동의 흐름이 강화되도록 구조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은 단지 식민주의적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 무의식적으로 사회적 기술로서 사용되고, 도시 · 마을 · 공장 · 농어촌에 거주자들을 편입시켜 범주화하고, 훈육, 조정, 개조해가는 권력의 전략으로서 사용된다(이영민 · 박경환 역, 2011, 102). 이처럼 식민지 하의 경관들은 식민지 토착민들의 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경관은 하나의 정치적 구역이 된다(Duncan, 1992, 86).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경관을 명시적으로 읽고 잠재의식적으로 이해하게 됨에 따라 보다 경관 현상의 권력에 잘 이용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관을 통해 보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경관에 쉽게 다가가고 만져볼 수 있고 그것을 숭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Duncan, 1992, 81). 이렇게 식민주의 경관에 있어 권력의 운용은 경관을 통해서 미묘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환자들의 수용소를 일종의 감옥처럼 중앙에 감시탑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뻗어있는 형태로 계획하거나 혹은 줄지어 놓인 공장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숙소를 직선으로 늘어선 형태로 만들어 소유주나 관리인의 공간에서 감시가 용이

하도록 질서정연하게 배치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권력의 시선을 이용한 판옵티콘(panopticon)⁴⁾의 형태를 띤 식민주의적 경관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관을 통해 환자와 노동자들은 자기 규율을 강화시킴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감시당하게 된다.

이렇듯 식민지의 경관은 지배자들이 권력적 은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도적으로 새로운 臣民·피지배자들을 위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즉 식민지의 공공건물이나 주요 건물들은 지배자 입장에서 강한 인상을 주도록 만들으로써 피지배자들 자신이 직접 경관에 내재된 권력의 기호를 바라보도록 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통치자들의 권력을 확고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를 함축한다. 결국 식민지 경관은 식민지 사회를 특징짓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효과를 반영하는,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 권력의 강압적 협상을 구체화 시킨 공간이기도 하다(Yeoh, 1996, 10).

한편 공간의 생산에 대한 통제는 곧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에 대한 통제이다(Lefebvre, 1991, 211). 이러한 측면에서 식민권력의 영향으로 형성된 경관의 한 형태로서 병원, 수용소(감옥), 노동자 사택 등의 경관은 감시가 정당화되는 통제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지배자들은 식민지인들을 민족, 도덕적 타락, 질병, 물질적 누추함, 정치적 무질서와 같은 담론을 통해 분리를 정당화시키며 그들에 대한 육체적 노동과 처벌을 행하였다. 즉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인구를 하나로 모아 그들을 예전의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감독과 통제의 시·공간적 전략을 사용하여 그들을 차별받는 환자와 노동자로 재구성하였다(Ducan, 2002, 317). 이와 관련하여 일제는 조선의 민족성을 빈곤, 불결, 태만, 교활 등으로 강조하고, 반면 일본의 민족성을 청결, 근면 등으로 만드는 담론을 형성해내는데(미즈노 나오키 등, 2007, 42),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병원, 수용소, 노동자 사택 등은 감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판옵티콘의 적용 공간이자 분리·차별의 공간이 된다. 일제강점기 당시의 이들 공간은 잘못되고 결합이 있는 조선인을 제대로 교정하여 사회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던 권력적 공간이 된 것이다.

특히 소록도의 경우는 전염병이라는 명을 씌워 평생을 감금시킬 수 있는 장치로 이용한 공간으로 병원과 수용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이들의 성격을 모두 갖추었던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삼릉 마을은 사택

이라는 이름으로 대가없는 노동의 사명이 주어지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이었다. 두 곳 모두 가난과 무지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억압적 권력과 계몽의 목적이 내재된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의 소록도와 삼릉 마을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라는 약자의 테두리에서 더 나아가, 환자와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차별화된 약자의 공간으로서 형성된 지역이다.

2) 식민지 경관이 포함된 근대문화유산의 개발과 보존의 문제

“내가 태어난 나라, 내 가족의 고향, 내가 태어난 집, (아버지가 내가 태어난 날 심었던 것으로) 개나 그것이 크는 것을 보게 될 나무, 순결한 추억들로 가득 차 있는 내 어린 시절의 다락방. 그런 장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문제가 되고, 더 이상 명백하지 않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 공간은 걱정거리가 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적해야 한다. ...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지는 것처럼 공간이 녹아내린다. 시간이 공간을 데려가 버렸고, 오직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조각들만 남아있다(Perec, 1974, 179-180).”

Perec(1974)은 개발의 명목으로 파괴된 역사적 공간의 부재와 상실 등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의 기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는 장소가 사라졌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정체성과 개인사를 큰 역사가 지워버렸다고 해도 결코 큰 역사에게 즉각적으로 작은 역사의 복구를 요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느꼈던 상실감, 상처와 파멸의 경험을 상징하는 공간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면서도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경관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조선 말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걸쳐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특정 문화유산들은 일본의 흔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민권력이 드러나 있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유산 경관은 “자주적인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시대적 상황에서 타율적인 移植이 적용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동안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 쉽게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전철을 밟아와 근대 경관의 보존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이완건·박인곤, 2005, 64-65).

경관은 진정성(authenticity)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보존성(conservativeness)의 문제를 지닌다

(Jokilehto, 1999, 296).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대의 식민 경관을 과거의 암울했던 시기의 공간이라고 여겨 모든 것을 없애버리거나 기존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공간을 헐어 최신식 공간으로 바꾸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학자들은 근대문화유산이 남아있는 공간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학자들은 현실성을 고려해 활용을 통한 보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정화 · 민현석 · 노민택(2009)은 스토리텔링⁵⁾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식민경관에 대한 낮은 인식을 높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한 이미지를 발굴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약표 · 임선희(2011)는 국내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적용하여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근대 역사 경관의 보존 가치를 언급하고 경관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식민지 경관의 보존 방안으로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성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가치의 보존을 위한 방편, 다크투어리즘

1996년 Foley and Lennon에 의해 처음 학술적으로 쓰인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용어는 휴양과 관광을 위한 일반 여행과는 달리 죽음이나 재난에 관련된 장소를 회상이나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학자에 따라 다크투어리즘은 “죽음 · 고통 · 비극 · 재앙과 관련된 장소로, 예를 들면 학살 장소, 재해로 다수의 죽음이 발생한 곳, 전쟁터, 묘지, 능, 교회 지하무덤, 감옥, 전쟁박물관, 고인의 생가 등으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Stone, 2006, 146), 또한 “비극적 사건 혹은 역사적으로 괄목할만한 죽음이 발생한, 또한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의 방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Tarlow, 2005, 48). 비슷한 의미로 다크투어리즘을 사거관광(thanatourism), 암흑관광(black spot tourism), 애도관광(grief tourism), 그리고 공포관광(morbid tourism) 등으로 쓰기도 하는데(김하나, 2014, 7; 김현식 · 양정호, 2014, 177),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부터 국립국어원이 채택한 ‘역사교훈여행’이라는 용어를

다크투어리즘을 대신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다크투어리즘은 죽음, 고통, 재난 등과 연관된 여행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 안에서 ‘역사적 가치’와 ‘장소’가 중요한 특징으로 연관된다. 특히 “반인륜적인 행위로 얼룩진 역사현장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여행, 보통 여행과는 달리 역사의 참상을 돌아보며 자기반성과 교훈을 얻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라는 김현식 · 양정호(2014)의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정의는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다크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인간성에 반하는 죽음, 재난, 폭력행위, 비극, 범죄와 죽음의 살해현장을 방문한다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과거나 안 좋은 기억 등 일반인들 생각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곳을 관광자원화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한숙영 · 박상곤 · 허중옥, 2011, 8). 그런 의미에서 다크투어리즘은 역사적 · 교육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산관광(heritage tourism)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유산관광의 특성을 포함하는 다크투어리즘 적용 경관과 그 보존 가치는 지역적으로는 장소의 기억 보존을 통한 정치 · 경제적 동기로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문화적 동기를 수반하는 교육적 효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경관을 통해 과거의 무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기억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오히려 차별화된 장소로서의 가치와 부정적 장소자산의 이미지가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류주현, 2008, 68). 따라서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경관의 보존 노력은 내적으로는 식민 과거를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드러나는 지배 · 피지배 계층의 이중적 경관의 특성을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장소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관광객 흡인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두운 식민지 역사라도 그 경관을 그대로 장소자산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다크투어리즘적 보존 방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반영된 경관들이 상당부분 남아있으나 아직도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경관을 일제 식민의 잔재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철거의 대상이 아닌 보존의 장소자산으로 봐야 한다. 이제라도 일제식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남

아있는 경관을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 재창조하고, 이러한 경관의 다크투어리즘화 방안을 통해 일제의 인권 유린 범죄를 일깨워주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미래 세대의 평화와 역사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재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일제강점기의 권력이 강압적으로 반영된 경관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소록도는 한센인, 삼릉 마을은 미쓰비시 노동자들이 대거 수용돼 강제노동과 착취, 인권탄압이 자행된 공간이다. 이곳들은 각각 한센병 환자, 조선 노동자라는 이름의 사회적 약자로 일반인들과는 분리(segregation)되고, 그들끼리는 군집(congregation)의 형태를 띠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간 속에서도 더욱 차별적인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경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들 경관은 당시 조선인에 대한 공간적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며, 지금도 여전히 이 두 곳은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역사적 가치를 외면 받은 채 소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1) 소록도

(1)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내재된 경관

① 감금병원이자 수용소로서의 의미

소록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국립소록도병원(구 자혜의원)’이라는 안내판을 볼 수 있다(그림 2). 마치 이 섬의 전체가 하나의 병원처럼 여겨지게 하지만, 이 섬 전체가 병원은 아니다. 이 병원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7년 일제가 ‘나 예방

에 관한 건’을 제정하여 부랑자, 결식 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기로 하고, 1910년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시립 나 요양원’을 만든 것을 1916년에 일본 명치천황이 낸 기금으로, 1917년 조선총독부는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정식 개원하여 전국의 나환자들을 강제 수용하기 시작했다(한순미, 2010, 452).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나환자(한센병) 환자는 공포감을 주는 사람들, 즉 부랑자, 결인, 범죄자 등으로 이미지화되고 그들은 우선적으로 處決해야 할 관리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한센병이 주는 전염의 공포는 계몽적인 위생담론과 결합하며 일상을 지배하는 논리적으로 토대를 뒷받침하게 되고, 한센병 환자들이 비위생적인 몸과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규율적인 지배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결국 일제강점기 하에 소록도는 과학과 집단의 생명을 내세우며 식민지 권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조선인 약자들의 몸과 생활을 통제하는 억압적 공간의 상징이 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동안 한센병 환자들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사람들로 규정되고, 건강한 사람들이 처한 위생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절한 수용이 필요한 위험한 사람들로 간주된다(한순미, 2010, 456). 이처럼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 하에서 한센병 환자의 격리 수용은 소록도라는 공간적 의미를 바꾸어놓았다. 다시 말해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 격리 수용은 병을 고치고 전염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도시와 사회와 일반인의 위생적 안전을 위해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추방’의 의미로 전략적으로 창출된 공간이었다. 결국 소록도는 환자 구제가 아닌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맥락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록도는 추방된 사람들의 거대한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2. 소록도 입구에 명기된 국립소록도병원 안내판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3. 소록도의 감시탑과 수용시설 일부

병원이자 또 다른 수용소로서 판옵티콘이 적용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현재에도 남아있는 이 수용시설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붉은 벽돌로 공동체를 이룬 가옥, 병원, 공장 등으로 남아있으며, 소록도 수용소의 중앙에는 감시탑이 남아있어 당시 공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던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음을 상징한다(그림 3).

② 억압적 지배 공간이자 인권 탄압의 장소로서의 의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가혹한 학대를 당했으며, 강제 노동과 일본식 생활 강요, 불임 시술 등의 인권 침해와 부당함을 겪었다. 이러한 환자들의 한과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으로 ‘수탄장, 신사, 중앙공원, 그리고 감금실과 검시실’ 등이 있는데, 이들 식민지 경관의 대부분은 낡고 허름하다. 특히 감금실과 검시실 등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간에 대한 어떠한制裁 없이 관광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있어 이곳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먼저 ‘愁嘆場’은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로 나뉘는 경계선으로, 전염병을 우려해 환자와 환자자녀가 도로

양 옆으로 갈라선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하는 장소였다. 이 광경이 탄식을 자아낼 만 하다고 하여 이곳을 수탄장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러한 사연은 현재 낡고 녹슨 간판 하나로만 소개되고 있어 이곳 경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차칫 지나치기 쉬운 곳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소록도 갱생원 신사’는 1935년 5월 28일 제 4대 원장 슈호 마사토(周防正秀)의 재임 당시 건축된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만들어진 건축물로서, 天照大神을 모셔놓고 참배하도록 한 곳이다. 매월 1일과 15일을 신사참배일로 정하고,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참배를 강요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과거의 신사를 새로운 구조물의 형태로 변경해놓아 보존 가치가 많이 상실되었다.

세 번째로 ‘중앙공원’은 1936년 12월부터 3년 4개월 동안 6만여 명의 환자들이 강제 동원되어 6천 평 규모로 조성된 공원이다. 지금도 공원에는 환자들이 직접 가꾸어 놓은 갖가지 모양의 나무들로 인해 빼어난 조경이 돋보이는 곳이다. 공원 내에는 ‘한센병은 낫는다’라는 문구가 하단에 새겨져 있는 救癩塔과 일제강점기 당시 벽돌을 만들었던 공장 자리엔 예수상이 세워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4. 수탄장, 신사, 중앙공원 내 구라탑과 예수상

져 있어,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과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경관으로 남아있다(그림 4).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시인 李東의 시, ‘단종대’의 첫구절)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때 자혜의원 원장이 이곳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을 불법으로 감금했던 ‘監禁室,’ 그리고 출감하는 날에는 예외 없이 강제로 정관수술을 시행했던 ‘檢屍室’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은 단지 치료를 받기 위해 수용된 환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사상적으로 검열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는데 감금실과 검시실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장소이다. ‘감금실’⁸⁾은 일제강점기 인권탄압의 상징물이다. 붉은 벽돌과 육중한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과 북의 두 건물이 회랑으로 연결된 H자 형태로, 방엔 철창이 설치되어 있고, 각 실의 한쪽 마루바닥을 들어올리면 번기가 나오는 형무소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다. 한센환자는 직업의 자유와 주거이전의 자유, 이동권을 박탈당하였으며, 수용환자들은 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곳에서 감금, 감식, 금식, 체벌 등의 징벌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강제노역이나 온갖 가학에도 굴종케 하고, 부당한 요양소 운영에 대한 저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었다. 한편 ‘검시실’⁹⁾ 건물은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쪽의 방은 주로 사망한 환자의 검시를 위한 해부실과 환

자들의 생체 실험실로 사용되었으며(瀧尾英二, 2004, 78),⁸⁾ 뒤쪽의 방은 정관절제를 집행했던 곳이다.⁹⁾ 이렇게 감금실과 검시실은 소록도 내에서 일제강점기 권력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경관이다. 그러나 소록도 내에 남아있는 이들 문화유산들은 어떠한 가이드라인 하나 없이 방치된 채 관광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오픈되어있다(그림 5). 그러다보니 이러한 역사적 경관을 만지고, 낙서하고, 훼손해도, 이를 관리할 요원이나 제약 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망가지고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소록도의 수탄장, 신사, 중앙공원, 그리고 감금실과 검시실 등은 일제강점기 억압적 지배 공간이자 인권 탄압의 장소로서 식민권력이 강하게 내포되어있는 경관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기억을 통해 이들 공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소록도 경관을 다크투어리즘 장소로 재정립해야한다.

(2) 현재의 일상적 경관과 상징적 경관

현재 소록도는 섬 전체가 국유지로, 대부분 섬 주민은 국립 소록도 병원의 직원 및 이미 전염력을 상실한 음성 한센병 환자들이고, 또한 환자의 대부분은 65세를 넘긴 고령자이다. 환자들의 주거 구역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환자들은 병사지대(소록리 2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병원 직원 등 환자가 아닌 사람들은 관사지대(소록리 1번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소록도의 공간을 건강지대와 환자지대로 구분하고 무독지대와 유독지대로 분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5. 감금실(上)과 검시실(下)

리하여 공간 배치를 계획한 것이 현재에도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이곳 소록도는 일반 사람들과 분리되어 외부 지역과 더욱 차별되고 고립된 공간으로 남아있다. 아름답게 드리워진 소나무 숲 해변과는 대조적으로, 곳곳에 방치되어있는 병커 내부의 허름한 일상경관과 외부와의 경계를 선명히 드러내는 간판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그림 6).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약자의 이미지가 되고 있다.

“외지 사람, 만나기 싫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다짜고 짜 너희 부모님 문둥병이냐며 물어보고, 넌 안 걸렸냐고 물어봐요. 여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병 걸린 사람인 줄 알아요. 얼른 여기에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녹동초등학교 소록도 분교 학생, 김O씨, 2015년 4월 25일 인터뷰)

“여기서 문둥병 걸린 사람, 봤어요? 난 아직 못 봐서, 여기 온 김에 보고 가야하는데.....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 (소록도 관광객, 50대 여성, 백O씨, 2015년 4월 25일 인터뷰)

“난 소록도가 이 동네에서 썩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 여

기 항구가 얼마나 예쁜데..... 저기 보이는 소록도 때문에 지역 이미지만 나빠지고..... 그리고 난 환자 아니여.” (소록도 맞은 편 녹동항 거주, 70대 여성, 이O씨, 2015년 4월 25일 인터뷰)

“관광객들이 이곳에 오기 전 조금이라도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고 왔으면 좋겠어. 요즘은 그래도 봉사자도 많이 오고, 기사도 나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 관광 오는 사람들은 우릴 보는 시선이 안 좋아.” (소록도 거주민, 70대 남성, 김O씨, 2015년 4월 26일 인터뷰)

이러한 차별적 시선과 행태, 그리고 낡고 방치된 경관은 소록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소록도에는 상처받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종교시설(천주교회·개신교회·원불교당 등)이 입지되어 있고, 방문객들의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소록도의 아픈 역사와 지난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관이 구비되어있다(그림 7).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센병과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가 부족한 편이며, 또한 식민지 역사로 인해 형성된 이 공간의 굴곡진 슬픔을 알지 못하는 이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6. 소록도의 병사지대와 방치된 병커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7. 한센병 자료관(上)과 천주교회·개신교회·원불교당 등의 종교시설(下)

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소록도의 경관 속에서 국립소록도 병원은 여전히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상징적 경관이다. 강압적 분리와 실험 및 치료가 반복되던 과거의 병원은 이후 현대식 건물로 바뀌었다(그림 8). 최근에는 이곳이 치매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병원으로 전문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를 격리시킨 이유와도 같다. 즉, 섬이라서 자연적인 격리가 가능하다는 점, 기후가 온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육지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현재에도 환자를 격리 수용 및 치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록도와 노인요양병원의 형성 이유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은 이렇게나마 외지와와의 긍정적 소통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이곳을 대하는 관광객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소록도 내의 많은 역사적 유물이 제대로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어차피 사람들은 소록도에 와 보긴 할 거야. 기왕 왔으면 그전엔 몰랐더라도 이제라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 뭐, 그러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일제의 흔적들이 잘 남아있어야겠지. 나야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기가 신기할 거 아냐? 그나마 있는 거, 제대로 관리나 해 주었으면 하네.” (소록도 거주, 70대 남성, 민O씨, 2015년 4월 26일 인터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곳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한과 고통이 녹아든 식민지의 아픈 역사가 스며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경관들이 상대적으로 잘 남아있기는 하나 이들 경관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가시적인 경관이 많이 남아있다고 해서 이들 경관의 보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 소록도는 일제치하에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고, 감금과 체벌과 실험을 통한 각종 인권탄압과 억압이 행해졌던

강제된 식민권력의 역사가 내재된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곳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관광객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공간으로서만 인지하며 이곳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소록도 내에 남아있는 경관들의 수많은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말이다.

소록도는 더 이상 과거에 자행된 억울함의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리없이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남은 이 문화유산 경관들이 앞으로 더 손상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관이 제대로 인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가와 위락을 위한 관광지 개발은 지양하고, 역사적 교육이 뒷받침된 다크투어리즘 장소로서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관광객들의 편견어린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경관의 중요성을 인지한 장소의 홍보와 역사교육을 통한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식민권력으로 형성된 이들 공간의 보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의 아픈 기억과 이해와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찰적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부평 삼릉 마을 - 미쓰비시 줄사택

(1)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이 내재된 줄사택 경관

“삼릉 근처 소화여학교에 다니던 조선인 여학생들은 1940년부터는 위안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미쓰비시나 조병창에 취업하곤 했어요.” (부평역사박물관 해설사, 전부자 선생님, 2016년 2월 21일 인터뷰)

삼릉 마을 역시 소록도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곳이다. 앞선 연구지역 개관에서도 언급했듯 인천은 남한 최대 군수공장인 인천육군조병창이 들어선 곳으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은 중국과 인접한 데다 항만시설까지 갖춘 인천으로 끌려와 군수물자 생산에



출처: 2015년 4월 필자 촬영.

그림 8. 국립소록도병원과 그 옆에 위치한 노인요양전문병원



출처: 부평역사박물관(左); 2016년 2월 필자 촬영(右).

그림 9. 삼릉 마을 출사택의 과거와 현재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0. '삼릉' 지역명이 들어간 상점 간판

동원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삼릉 출사택 지역은, 당시 일제가 자행한 전쟁에 수반되는 군수 물자들을 생산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국내에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적 수용을 목적으로, 미쓰비시 군수회사에 의해 열악하게 지어진 일종의 '강제 노역자 숙소'이다. 당시 이곳에 거주한 약 천 명의 조선인들은 일본군 위안부나 해외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사람들로, 12살 어린이부터 환갑이 넘는 노인들까지 강제로 끌려와 팔과 손이 잘려나가는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내야만 했던 곳이다(SBS 스포츠 뉴스, 2016년 2월 28일자).

현재 남아있는 삼릉의 출사택은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도 비좁아 보이는 작은 문과 다닥다닥 붙은 구조가 특징이다. 거의 폐허처럼 방치되었지만 아직도 일부 남은 이들 경관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대변한다. 삼릉 출사택 단지의 규모는 호당 33m², 전체 7,659m²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총 87채가 남아있고, 이중 70여 채가 비어있는 상태이다(그림 9).

① 현재에도 남아있는 삼릉(三陵)이라는 지명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 일본말을 많이 썼어. 여기 동네 이름도 삼릉 그대로 쓰고 있고 말이야.” (부평2동 거주, 80대 여성, 김O씨, 2016년 2월 14일 인터뷰)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에 가면 마을 초입부터 상점의 간판을 통해 ‘삼릉’이라는 글자를 쉽게 만날 수 있

다. 현재까지도 ‘삼릉’이라는 지역명은 마을 상점의 간판을 통해서도 남아있어 일제강점기의 지울 수 없는 아픔과 권력의 역사가 전달되는 곳이다(그림 10).

② 쪽방, 좁은 골목, 그리고 협소한 계단

“난 사택에 살진 않았는데 우리 남편이 미쓰비시에서 일했어. 공장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휴가 같은 건 없었다고 해. 일단 공장에 들어오면 자기가 그만둘 수 없었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냉기 가득한 쪽방에서 누워있는 게 다였대.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앓는 소리가 옆집에서 다 들렸대.” (부평2동 거주, 80대 여성, 김O씨, 2016년 2월 14일 인터뷰)

“난 계속 여기 살고 있어. 쪽방인데다가 골목까지 좁아서 어지간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인지 대충은 알지. 계단은 또 얼마나 좁고 불편한지..... 옛날엔 여기 일이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는 건 상상도 못 했어. 골목이랑 계단이 좁아서 그냥 다 잡혔어. 그럼 며칠 매 맞고 있다가 나오면 또 일하는 거야. 그냥 여기 일꾼은 기계였지, 인간이 아니라.....” (부평2동 거주, 80대 여성, 박O씨, 2016년 2월 14일 인터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명과 함께 줄줄이 늘어선 사택은 삼릉 마을을 대표하는 경관이다. 삼릉 마을의 사택들은 한 채 한 채 독립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기다란 모양의 일곱 채가 나란히 벽을 맞대고 있는 구조로 한 개의 지붕이 일곱 채 위에 얹혀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 늘어서 있는 출사택과 함께 이곳의 좁은 골목과 협소한 계단 역시 삼릉 마을을 대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1. 줄사택의 협소한 골목과 가파른 계단

표하는 경관이다. 사람 한 명이 들어서기에도 비좁은 골목이 연속적인 선의 형태로 늘어서 있으며, 또한 삼릉 마을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계단들 역시 골목과 마찬가지로 가파르고 협소해 보행하기가 쉽지 않다(그림 11). 이렇게 획일적으로 형성된 줄사택 쪽방과 그 사이의 비좁은 골목과 계단은 식민권력에 의해 통제되어 살았던 조선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

(2) 현재, 폐 · 공가로 방치되고 있는 줄사택 경관

① 낡은 폐 · 공가와 쓰레기 더미의 상징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마치 쓰레기더미처럼 방

치된 채 폐가와 공가가 줄지어있다. 폐가 내부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약 7~8명 정도가 함께 기거한(SBS, 2016년 2월 28일자), 5평도 채 되지 않는 좁은 방이 있다. 네모난 세포처럼 이어진 칸칸이 방과 줄지어 늘어선 사택의 경관은 폐 · 공가와 아직 남아있는 거주민들의 공간과 뒤섞여 과거와 현재로 이어지는 무질서한 역사의 참상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있다(그림 12). 이렇게 일제의 강압적 역사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곳은 역사적 무관심 속에 철거될 상황에 처해있다. 과거엔 일제 강압의 권력이 장악했던 공간이라면 현재는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난과 차별의 시선으로 장악되는 공간이 되고 있어 이 역사적 공간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2. 폐 · 공가와 쓰레기더미로 장악된 경관

② 가난과 소외의 상징

“내가 어릴 적 삼릉에 많은 친구들이 저 주택에 살았어요. 대부분 가난한 친구들이었죠. 다다미식 마루에 집 내부엔 없는 화장실 골목에 공용화장실이 있었고요. 비 오는 날이면 화장실 냄새가 심하게 나고, 겨울이면 집 안에서 입김이 날 정도로 엄청 추웠는데 그 땐 몰랐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집들이 징용 온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이었다는 걸, 철길 앞 3군 지사 군부대 자리가 일제 때 미쓰비시 중공업이고, 그 위에 조그만 산에 땅만 파면 나오던 사람 두개골이 징용 온 사람들 묻었던 곳이었다는 걸 내가 다 큰 성인이 돼서야 알았어요.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린 역사에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부평3동 거주, 40대 남성, 한○씨, 2016년 2월 14일 인터뷰)

외면 받은 역사로 인해 삼릉 출사택은 낡고 허름한 모습으로 그 형태가 남았다. 이제 이곳은 쓰레기 더미로 인식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이곳은 인천의 대표적인 슬럼가가 되었다. 과거 강제 노역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공간으로 서러웠던 이곳은 현재 가난한 서민들의 공간으로 여전히 차별받는 경관으로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87채 중 이용되는 사택은 17채 정도이며, 이곳의 거주인구는 약 20명으로 주로 장애인과 기초

생활수급자이다.¹⁰⁾ 이 마을의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 주차된 장애인용 사륜 전동 스쿠터, 곳곳에 쌓인 연탄 등의 경관을 통해 이곳 주민들의 녹록치 않은 생활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어진 판자에 돌로 눌러놓은 허름한 지붕, 관리되지 않는 공용 화장실은 이곳의 가난한 환경을 잘 반영한다(그림 13).

③ 주변경관과의 대조

거주민의 일상적 경관을 통해 드러나는 그들의 빈한한 삶은 상대적으로 주변 경관과 큰 대조를 이룬다. 주변의 빌라나 아파트와는 대조적으로 낡고 허름한 형태의 삼릉 마을 출사택의 경관은 이제 슬럼화를 넘어 인근 지역주민들도 기피하는 주거환경이 되고 있다(그림 14). 결국 삼릉 마을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또 다른 외딴 지구로서 철저히 분리된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대문 밖을 나섰을 때 동시에 느껴질 거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 지역에서는 가난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역사적 사실과는 별도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3.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일상적 경관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4. 삼릉 마을과는 대조적인 주변 건물들

④ 개발 결정으로 인한 지역갈등

“사람들, 이 동네 가난하다고 우습게 봐서 힘들게 살았어. 일제 때 어떤 곳이었는지 애긴 들었는데, 난 역사 그런 거 잘 몰라. 사람들이 꺼리는 동네 사는 게 싫을 뿐이지. 나도 이제 몸도 아프고..... 난 충분히 합의만 되면 개발도 되고 이사도 갔으면 좋겠어.” (부평2동 거주민, 50대 여성, 이 O씨, 2016년 2월 21일 인터뷰)

“이 동네, 겉보기엔 이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 붙이고 산 곳 이요. 내동 내버려두다가 갑자기 개발한다고 쉽게 나가라고 하면 되나? 뭐, 여기를 역사적으로 남겨놔야 한다면 오랫동안 이곳에 터 잡고 살아온 우리들도 그냥 살게 두면서 역사를 지킨 사람으로 대우도 해주면 좋겠소만. 자부심 가지고 살게..... 대신 여기 쓰레기들 좀 치워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주면, 번거롭게 다 허물고 개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소?” (부평2동 거주민, 70대 남성, 정 O씨, 2016년 2월 21일 인터뷰)

이러한 주민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랫동안 방치된 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국 재개발이 선택되었다. 2015년 2월, 삼릉 마을은 부평구 주거 개선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도시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일명 ‘새뜰마을 사업’)에 이곳이 포함된 것이다. 향후 부평구는 2018년까지 국·시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줄사택 일대 7,659m²의 폐·공가를 사들여 이곳을 모두 허물고 여기에 소규모 임대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in, 2015년 3월 30일자).¹¹⁾ 그간 가난함이라는 편견과 시선에 시달린 지역주민 상당수는 이러한 개발에 동의하고 있으나 아직 이주 합의금 문제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어 충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다(그림 15).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시가 추진하는 개발 계획에 있어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방치된 삼릉 마을의 개발 계획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

내 강제동원 피해현장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부평2동 삼릉 마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우선해야 한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경관을 무조건적인 개발의 논리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허물기식 개발 이전에, 역사적 보존 가치와 그 지역에서 생업을 꾸리고 있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주민들과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생활여건을 위한 ‘개발’과 역사적 가치를 위한 ‘보존,’ 이 두 개념의 ‘합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정해진 기한이 아닌 보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경관을 통해 살펴보면, 삼릉 마을은 소록도보다도 그 역사적 보존 가치가 더 크게 상실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삼릉이라는 왜색 지명을 통해서만이 간간히 역사적 의미가 유추될 뿐이다. 실제로 거주민과 그 주변지역 거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이 공간이 과거에 어떠한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역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줄처럼 이어진 과거의 사택은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채, 현재는 거의 폐·공가의 수준으로 무너져가고 있으며, 이렇게 쓰레기터미로 뒤덮인 줄사택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즉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주지는 더욱 고립되어가고 있다.

조만간 삼릉 마을은 전면적인 재개발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이곳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가 반영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학자들의 지속적인 보존 연구를 통해 삼릉 마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3) 두 지역 경관의 특성에 대한 공통성 분석

전남 고흥군의 소록도와 인천시 부평구의 삼릉 마



출처: 2016년 2월 필자 촬영.

그림 15. 삼릉 마을 재개발과 그로 인한 지역문제 표출

표 1. 소록도와 삼릉 마을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공간적 공통성

구 분	구성목적	대 상	일제강점기	현재의 경관	상징적 의미
소록도	한센인 치료와 격리	한센병환자	노동착취, 감금, 생체실험 ⇒ 병원, 수용소	환자(한센병, 치매 등), 봉사자 ⇒ 병원	역사가 배제된 가난과 차별
삼릉 마을	미쓰비시 회사의 무기제조	생산노동자	노동착취, 인권탄압 ⇒ 사택시설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주택	

을의 경관 분석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이 지역들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형성된 억압과 차별이 현재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여전히 소록도는 한센인 환자들과 병으로 상징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삼릉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인 채 가난함을 상징하는 차별적 공간으로 남아있다(표 1). 다시 말해 이 지역들은 첫째, 일제강점기로부터 형성된 ‘억압과 강압의 공간’이 편견과 차별, 그리고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둘째로 이곳들은 여전히 ‘비인격적이고 배려가 없는 공간’으로 남아 이 공간의 진정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일제 식민역사라는 ‘객관적 진정성’과 함께,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관이라는 ‘실존적 진정성’이 있는 곳이다. 일제 강점기, 환자와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한 공간에 모여 살게 된 이곳들에 대해, 앞으로는 재개발을 통해 없애야 할, 그리고 통제를 통해 격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보존’의 방안으로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간의 지역주민과 이 공간을 방문하는 관광객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는 ‘구성적 진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¹²⁾ 즉 여타 지역으로부터 분리되어있는 소록도 및 삼릉 마을이라는 행정적 경계를 뛰어넘어, 주민과 관광객의 올바른 역사관으로부터 형성된 일상(현재)과 비일상(과거의 역사)의 소통, 자원봉사와 삶터로서의 경험을 전하는 현지민간의 직접적인 교류 등을 통해 구성적 진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이 단순히 억압과 차별이 내재된 비인격적 공간이 아닌, 부정적 자산을 활용한 다크투어리즘의 좋은 사례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4. 일제강점기의 식민권력이 반영된 경관의 보존과 개발의 문제

1) 소록도 개발상황

전라남도 고흥군은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가 해마다 줄고 있어 점차 수용환자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소

록도를 국제적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록도~나로도~거금도 등을 묶는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내고, 138만평의 국유지인 소록도 남쪽 해안에 수영장을 갖춘 호텔, 콘도미니엄을 짓겠다고 발표하였는데(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27일자), 2014년 개장된 거금해양낚시공원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 중 하나이다(연합뉴스, 2015년 8월 4일자). 여기에 복지부는 ‘국립소록도병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소록도의 병원을 한센병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전문치료 연구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순천시는 성지순례관광코스에 소록도를 포함시켜 종교적 관광루트로 조성한 바 있다(아시아경제, 2014년 12월 16일자). 그러나 이들 제안 모두 일제 식민권력의 차별적 역사가 반영된 경관이라는 객관적 진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록도라는 공간을 개발의 논리로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삼릉 마을의 개발상황

삼릉 마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은 역사적 교훈을 전하는 현장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2018년 진행될 도시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언론 보도나 지역위원회의 발표 등을 보면, 삼릉 마을을 그저 쓰레기 동네, 흉물스러운 폐가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폄하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가진 역사와 주거문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경제논리로서의 개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반영하는 산업화된 권력의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보존이 절실하다. 게다가 일본 미쓰비시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강제 노역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유적인 삼릉 마을 출사택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철거 결정은 다소 성급한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물론 현재 부평2동의 노후한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

는 거주민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의 사전 공감대 형성과 개발-보존 논리의 절충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다크투어리즘의 장소로의 전환을 위해 지금이라도 현재 남아있는 삼릉 마을 전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 삼릉 마을의 한 채만이라도 상징적 의미로 남기거나 표지를 세워서 이 장소의 의미를 알려야 한다. 식민권력을 통해 형성된 경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논리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평2동 삼릉 마을을 바라보고, 기록함으로써 이곳을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 재정비해야한다.¹³⁾

3) 식민경관이 반영된 경관의 보존가치 및 방안: 다크투어리즘

대부분의 독립 국가들은 식민 과거를 잊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식민지 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부 손상시키고 사라지게 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경관에 대한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제 식민의 잔재로만 여기던 시각에서 벗어나 철거의 대상이 아닌 보존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오히려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장소자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의 연구지역인 소록도와 삼릉 마을 모두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서의 재구성과 이를 통한 보존이 요구된다. 소록도와 삼릉 마을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되새길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들의 남아있는 경관은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아픈 역사가 외롭게 외면 받아온 근거로 볼 수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곳임에도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을 통해 외면당한 소수의 아픈 현실이 반영된 역사적 증거물이자 경관이기에 개발보다는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보존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 비극도 한국의 문화유산임을 정확히 인식하여, 우리가 지닌 역사적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크투어리즘의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단순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개발보다는 검증적 자료를 통한 보존으로 가꾸어나가야 한다. 특히 소록도와 삼릉 마을 출사택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식민권력을 증명하는 경관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원형 보존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 보존하는 데에 있어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경관을 통해 일제의 인권 유린 범죄를 알려야 한다는 당위성, 둘째, 이 경관의 보존을 통해 다가 후세에게 민족정신과 역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당위성, 셋째, 더 나아가 식민 권력을 통해 형성된 공간에서 차별과 억압 속에 핍박 받아온 환자와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는 당위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을 근거로 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 간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진정성 있는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서의 모색이 강구되는 바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특히 일제강점기 권력이 반영된 경관으로서 전남 소록도와 인천 삼릉 마을을 사례로 하여 실질적인 답사를 통해 그 경관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 보존 가치를 논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식민권력이 잔존하는 공간으로서 본고가 설정한 두 연구지역은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성이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다는 것, 둘째 과거에도 약자의 공간이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자의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적 특성에 착안해 본 논문의 연구지역으로 삼아 역사적 경관 보존 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그에 관한 보존 방안으로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화를 제안하였다.

먼저 전남 고흥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 연원은 일제강점기에서 찾을 수 있다. 소록도는 갯생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제의 나환자 정책에 의해 제대로 된 치료 대신 강제 격리되어 일본식 생활양식의 강요, 강제 노역 동원, 임금착취, 감금 및 생체실험 등의 만행이 자행된 공간으로서 외지와 차단되어 일본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관리·감독된 곳이다. 그러나 소록도 내 남아있는 우리의 중요한 근대문화유산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낡고 허름한 경관으로 남아있다.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소록도는 국내 한센병 환자들의 한 서린 역사가 잔존하는 곳이자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남아있는 차별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지역인 인천 부평 삼릉 마을(미쓰비시

줄사택 지역)은 일제가 강제적으로 민가를 철거하고 조병창의 부품하청업체인 미쓰비시 군수공장을 세워 거대한 군수공업단지를 조성한 곳이다. 이후 공장에서 종사할 노동자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지어졌으며, 당시 우리나라 청년들은 국민총동원령에 따라 강제 동원되거나 일제의 징병·징용·위안부를 피하기 위해 군수공장의 노동자로 취업하여 이곳 줄사택에서 노동착취와 인권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방치된 채 쓰레기로 뒤덮인 가난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연구지역인 소록도와 삼릉 마을의 경관을 살펴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만 탈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역사에 대해 간직하고 보존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이 두 연구지역은 일제강점기 권력이 재현된 공간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공간으로서 공간적 격리와 배제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지역임을 확인하였다. 실상 식민주의 권력이 우리에게 새겨놓은 여러 재현들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며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인데, 소록도와 삼릉 마을의 현재 모습은 일제강점기 식민주의 권력이 생산한 담론적 구조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곳은 여전히 일제 치하 당시엔 환자와 노동자로서, 현재에도 역시 병과 가난의 상징으로서, 그들은 함께 머물러있다는 군집의 논리와 근본적인 이타성을 체험하는 분리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경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역사는 기념이 아니라 기록이고, 경관은 그 기록 중 중요한 일부이다. 무관심 속에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의 기록들과 경관들은 사라져 가고 있다. 수치스럽고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외면해왔지만 이제라도 역사적 비극의 경관도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 경관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들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이에 보고는 근대문화유산이자 식민권력으로 형성된 소록도와 삼릉 마을 경관의 보존 방안으로 다크투어리즘적 장소로의 구현을 제안한다. 현대의 관광은 생명존중의 가치나 대상물의 정신적 가치를 인식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죽음 혹은 잊혀져

가는 역사적 공간을 통하여 기억과 반성을 다지는 다크투어리즘의 제안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경관이 반영된 근대적 문화유산 경관은 물리적 개발에 의해 사라져야 할 공간이 아니라 다크투어리즘을 통한 보존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단순한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그 경관에 대한 많은 역사적·사회적 관심을 두어야하며,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통한 경관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아 다크투어리즘적 관광자원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의 정의에 대해 국내의 기준에 근거하여 역사적 측면으로 한정 적용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또한 삼릉 마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국내에 남아있는 선행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하여 현장답사와 인터뷰, 그리고 보도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식민권력에 의해 형성된 경관의 사례 지역들을 토대로, 경관의 보존 가치의 문제를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해 실증적 연구로 적용하려는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향후에는 식민권력으로 형성된 경관에 관해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사실과 실질적 사례 지역의 경관을 적용해나감으로써, 당시 형성된 수많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파악하고 아직 남아있는 경관의 보존 방안을 강구하는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註

- 1)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을 한센병(Hansen's disease)이라고 한다. 나균이 피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킨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1871년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 나환자의 결절에서 나균이 처음 발견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한의학에서는 癰癤, 風病, 大風癰 등으로 부르고, 과거에는 문둥병 또는 天刑病으로 불리었다. 현재 일부 학술적 분야에서는 나병으로 하되, 사회적 분야에서는 한센병으로 통칭한다. 왜냐하면 나병이란 용어가 편견과 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나병에 대한 유전적·선천적 이환 가능성은 없으며, 전염에서 오는 발병은 나균에 대한 노출기회의 시간과 양이 관계되는데 개체의 면역이 약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나병에 이환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나병의 전파력은 약하며, 감염된 나균 역시 인체의 자연면역으로 인하여 많은 수

- 의 나균은 사균으로 변질된다. 특히 강력한 항라제 1회 복용으로도 수일 내에 모두 사균으로 변하기 때문에, 치료 이전의 제한된 극히 적은 수의 생균만이 전염·감염·이환에 이르는 경로를 밟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발병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2)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인천의 육군 조병창은 1953년 이후 미군 군수지원사령부, 일명 캠프마켓으로 바뀌었다.
 - 3) 일본 3대 재벌 기업(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 중 하나인 미쓰비시는 이 중에서도 대외 인지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며, 일본 중공업의 상징적 기업이다. 그러나 군수공업에 뛰어들었던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공식화한 일본 전범기업 103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 4) 판옵티콘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를 뜻하는 opticon의 합성어로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5) 스토리텔링이란 협의로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역사적 감정,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심미안, 공학적 기술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 6) 일제 말기에는 부당한 처우와 박해에 항거하던 환자들이 무수히 '감금실'에서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으며, 출감시에는 예외 없이 정관절제를 당하였다고 한다. 해방 이후 한동안 이곳은 격리실 또는 보호실로 불리었으며, 1973년 이후 내부를 일부 개조하여 신체부자유자의 가정사로 잠시 사용되기도 하였다. 2004년 2월 6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7호로 등록되었다.
 - 7) '검시실' 안에는 25세 젊은 나이에 강제로 정관수술을 받은 환자의 애절한 시가 남아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2004년 2월 6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었다.
 - 8) 일본인 인권운동가인 다키오 에이지(瀧尾英二)씨가 쓴 『小鹿島更生園 強制收容患者の被害事實과 그 責任所在』라는 책에는, 당시 수용된 생존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생체실험 대상이 된 환자 20여명이 일본인 의사에게서 '경련주사'를 맞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들 환자는 특히 경련주사를 맞으면 머리에 경련을 일으키는 증상을 보이며 모두 24시간 안에 사망했으며, 사체는 해부용으로 쓰였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했다. 또한 일제는 한센병을 박멸하겠다는 남성 환자와 임신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거세 및 낙태 수술을 자행했으며, 헌병과 경찰을 병원 직원으로 고용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적고 있다. 2003년 8월 발간된 이 책에서 다키오씨는 "일본 통치시대에 강제로 격리수용돼 아직도 소록도병원에 있는 사람이 117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자국의 강제수용자들에게는 1인당 800만~1400만 엔씩 보상하고 있다.
 - 9) 모든 사망환자는 본인 및 가족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검시실에서 사망원인에 대한 해부절차를 마친 뒤 간단한 장례식을 거쳐, 섬 내 화장장에서 화장 후 납골당에 유골로 안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소록도의 환자들은 "3번 죽는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센병 발병이요, 두 번째는 죽은 후 시체 해부요, 세 번째는 장례 후 화장을 일컫는다.
 - 10) 당시 미쓰비시 출사택에는 조선인 1000여 명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약 20여 명이 살고 있다. 일본이 군수물자를 한창 만들어내던 1940년대와 비교하면 10%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보니 이곳은 공가와 폐가가 즐비하게 되었고, 공용화장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 11) 허가건축물 개량 28호, 무허가 건축물 집수리 30호, 공폐가 철거 20호, 양호건축물 준지 9호로 계획하고 있다.
 - 12) Urry가 제시한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이란 '관광객은 특정 지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향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구성적 진정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이 된다. 즉 다양한 시기에 관광객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해 왔는지에 관심을 가지며, 누가 그리고 무엇이 시선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장소들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밝히는 구성적 진정성에 보다 주목하고, 왜 무엇이 진정하다고 정의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Urry, 1990, 12). 이러한 맥락에서 다크투어리즘은 자신들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적 상징에 의존함으로써 국가다움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혹은 지방이 자신을 세계와 국가 속에서 위치 짓는 적극적인 정치적인 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통해 구성적 진정성을 실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공동된 역사인식을 통한 교류 등을 통해 구성적 진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
 - 13) 현재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국내에 남아있는 일제 강제징용 지역에 안내판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수원일보, 2016년 2월 22일자).

文 獻

- 김명숙, 2005,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근대문화재," 미술세계, 253, 44-48.
- 김현식·양정호, 2014, "다크 투어리즘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적용 방안 연구: 관련 콘텐츠의 설계와 구성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176-187.
- 김하나, 2014, 다크투어리즘 방문객의 방문동기와 스토리텔링요소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중심으로 -,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주현, 2008, "부정적 장소자산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필요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67-79.
- 미즈노 나오키·정근식·고마고메 다케시·마쓰다 요시로, 2007, 생활 속의 식민지주의, 산치림.
- 반정화·민현석·노민택, 2009,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09(12), 1-293.
- 안길원·서학조, 2002,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 소록도

- 자원봉사센터,” 대한건축사협회지, 2002(3), 68-75.
- 오정수, 2013, 일본 식민주의 시기 나병 담론을 통한 소록도의 사회적 생산,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완건 · 박언곤, 2005, “도심지 근대건축물의 보존방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1(3), 63-72.
- 이영민 · 박경환 역, 2011, 포스트식민주의의 지리: 권력과 재현의 공간, 여이연(Sharp, J. P., 2009, *Geographies of Postcolonialism: Spaces of Power and Representation*, SAGE Publications, Los Angeles).
- 임동윤, 2008, 속칭 부평의 지명변동에 대한 지리적 해석: 부평구와 계양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약표 · 임선희, 201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 방안 - 프랑스 앙보와즈고성의 야간 스펙터클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 26(5), 455-471.
- 최승훈, 2005, “절망의 섬에서 희망을 보다,” 중등우리 교육, 181, 130-136.
- 한숙영 · 박상곤 · 허중욱, 2011, “다크투어리즘에 대한 탐색적 논의,” 관광연구저널, 25(2), 5-18.
- 한순미, 2010, “나환과 소문, 소록도의 기억,” 역사문화학회 - 지방사와 지방문화, 13(1), 441-476.
- 瀧尾英二, 2004, 小島島更生園 強制收容患者の被害事實과 그 責任所在, 人權圖書館 · 廣島靑丘文庫.
- Duncan, J., 1992, Re-presenting the landscape: problems of reading the intertextual, in Soderstrom, O., Mondada, L., and Panese, F. (ed.), 1992, *Paysage et crise de la lisibilité*, Universite de Lausanne, *Institut de Geographie*, 81-93.
- , 2002, Embodying colonialism?: Domination and resistance in 19th century Ceylonese coffee plantations,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8(3), 317-338.
- Foley, M., and Lennon, J., 1996, JFK and dark tourism: a fascination with assass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2(4), 198-211.
- Jokilehto, J., 1999, *A History of Architectural Conservation*, Butterworth-Heinemann, Oxford.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Blackwell, Oxford.
- Perec, 1974, *Espaces d'espaces*, Galilee, Paris.
- Stone, P., 2006, A dark tourism spectrum: Towards a typology of death and macabre related tourist sites, attractions and exhibitions, *Tourism*, 54(2), 145-160.
- Tarlow, P., 2005, Dark tourism: The appealing ‘dark’ sides of tourism and more, in Novelli, M. (ed.), 2005, *Niche tourism: Contemporary issues, trends and cases*, Amsterdam, Elsevier, 47-58.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SAGE Publications, London.
- Yeoh, B., 1996, *Contesting Space: Power Relations and the Urban Built Environment in Colonial Singapore*, Oxford Univ. Press, Oxford.
- 동아일보, 2015년 12월 29일, “징용자 쪽방, 재개발로 사라질 판... 지명 삼릉 유래도 몰라.”
- 수원일보, 2016년 2월 22일, “국내 일제 강제징용지역에 안내판 만든다 - 서경덕 교수팀 프로젝트 시작.”
- 아시아경제, 2014년 12월 16일, “순천시, 성지순례 관광 상품 개발 뎀터 실시.”
- 연합뉴스, 2015년 8월 4일, “고흥 거금도 해양낚시공원 개장.”
- 인천in, 2015년 3월 30일, “부평 삼릉, 미쓰비시 사택지에 대한 학술조사 필요 - 주거취약 개조사업 앞서 부평 근대산업유산 조사해야.”
- 인천일보, 2016년 2월 25일, “개발과 보존 사이... 역사의 기로 선 ‘삼릉 마을.’
- 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27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 관광지 개발 논란.”
- SBS 뉴스, 2016년 2월 28일, “철거하면 끝?... 무관심에 사라지는 아픈 역사.”
- SBS 스포츠 뉴스, 2016년 2월 18일, “지옥의 섬은 한국에도 있었다.”
- 부평역사박물관, <http://www.bphm.or.kr>
- 투 고 일: 2016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31일
투고확정일: 2016년 4월 7일